



화산

제임스 해밀턴 지음

폭력과 매혹, 화산의 두 얼굴

화산 폭발은 인간의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멀게는 기원전 1620년 경 산토리니에서 일어난 분화에서부터 얼마 전 1만 여명 이상의 주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우타라 주의 화산에 이르기까지 화산은 공포의 대상이다.

버밍엄대학교 선임연구원 제임스 해밀턴이 펴낸 '화산'은 역사적, 지역적으로 다르게 인지되었으나 인류의 관심사인 화산의 기록을 다룬다. '불의 신, 예술의 여신'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저자는 화산을 "잔혹한 재앙이지만 아름다운 피사체"로 접근한다.

역사 이래로 화산은 인간의 기억에 희미하고 아득한 흔적들을 남겼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절대적 폭행'을 기록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책은 화산을 과학적 눈높이뿐 아니라, 화가와 작가들의 눈을 통해 살펴보고 사람들의 인식과 그 변천사를 담고 있다. <반니·1만5000원> /박성천기자skypark@



제주 담다, 제주 닦다

백종열 지음

느릿느릿 제주도를 걷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하리라 계획했던 일들은 막상 시간이 흐르면 유아무야되기 십상이다.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하는 바쁜 일상은 미래 시점의 여유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제주 담다, 제주 닦다'는 배종열 일러스트레이터가 복잡한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제주에 내려가 보고 느꼈던 일상을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책이다.

저자는 완전한 여유를 찾고 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섬으로 내려왔다. 물론 현실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선택이었다. 책은 제주를 동쪽으로 한 바퀴 돌아 동해를 걸으며 느낀 점과 특별한 장소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다. 여기에 점차 제주와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자 자신의 생활과 제주를 닮은 사진과 그림이 더해진다. 올 여름 휴가철, 제주를 구석구석 돌아보며 삶의 여유를 느끼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다. <재송출판·1만6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자본에 예속된 상아탑... 대학의 미래는 있는가?

폐허의 대학

빌 레딩스 지음



대학 평가 순위, 각종 예산, 취업률, 강의 평가 점수...

오늘날 대학이 처한 현실을 말해주는 키워드들이다. 위의 키워드를 보면 오늘의 대학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어쩌면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말한 것과 동일한 의미다.

사실, 지금의 대학에는 구조조정이라는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대외적인 변화와 취업률 지표는 당장의 재정지원과 직결된다. 21세기 지식사회를 결정할 생존과 변화의 파고가 그리 간단치 않은 이유다.

그렇다면 오늘날 대학의 존립 이유와 그 역할은 무엇일까? 대학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근대로 들어서면서 대학의 구조가 빠르게 변화했지만,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이들은 드물다.

중세의 대학은 순수하게 학문을 연구하는 집단이었다. 물론 종교를 바탕으로 한 구조였지만 지

식인들의 유럽 내 이동은 자유로웠다. 지적 결과물이 확산되고 파급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19세기에는 민족국가가 발달하면서 대학도 영향을 받는다. 민족문화의 본산으로서 이를 지키고 선전하는 기능을 발휘했던 것이다. 대학은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체계화하고 재생산하는 원천이 되었다.

문제는 탈근대시대와 세계화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민족국가는 점차 쇠퇴했고 민족문화를 발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도 약해졌다. 대학은 갈수록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고 수월성(秀越性·excellent)만을 추구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수월성은 계량화된 수치로만 나타난다. 그러나 과연 그 수치가 어떤 이념적 의미를 갖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수치로만 '훌륭한 대학'이 되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대학 내에서) 전통적으로 추구해온 이성, 학문, 문화 계승은 뒤로 밀려나버렸다.

'리오타르 임문: 예술과 정치'의 저자이자 몬트리올 대학 비교문학 부교수로 재직했던 빌레딩스의 저작 '폐허의 대학'이 발간되었다. 저자는 탈근대시대, 대학의 미래는 무엇이며 오늘날 대학의 담론이 어떠한지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는다. 홀블트와 칸트의 영향으로 탄생한 근대 대학의 뿌리에서부터, 변모과정을 교양과 문화 이념과 관련하여 풀어낸다.

저자에 따르면 '폐허의 대학'은 '기업체와 유사한' 것이 아니라 아예 '기업체'가 되어버린 대학을 일컫는다. 시장에 의해 운영되고 사상과 가치보다 이윤에 관심이 있는 '훌륭한 대학'을 말한다.

이 책이 출간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 불행하게도 한국의 모든 대학은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받고 구조조정을 강요당하고 있다. 저자의 혜안이 빛나는 것은 고등교육에 대한 성찰과 논쟁의 장을 제공할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잠시, 위에서 언급한 '수월성'의 개념을 숙고해보자. 저자는 수월성은 대학의 가치를 '비용 대비 효율'로 환산하고 그 지표에 따라 평가, 대학을 회계 논리로 관리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본다. 정치적 혹은 문화적 지향을 담고 있지도 않으며,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월성으로 대변되는 '회계' 논리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책무를 감당할 것인가. 저자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폐허'의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근대 대학의 이념적 향수에 머물지 말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 대학인의 책무라고 말한다.

또 하나 '자유'를 통해 서로 다른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이를 통해 대학이 하나의 이념에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 결속을 생각하는 영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인다. 대학 강의실이 교수와 학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사유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학의 폐허는 학생이나 교수에게 그리스·로마 사원의 폐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이 하는 역할은 까맣게 모르는 듯 의식을 행할 텐데, 그 역할이란 곧 관공행사에 활기를 불어넣고 그 유적지를 운영하는 파렴치한 관리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다."

<책과함께·2만2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디아스포라의 눈으로 본 문학의 초월성



시의 힘

서경식 지음

시가 읽히지 않는 시대. 시가 힘이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 그는 절망의 시대, 시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지를 유려한 문체로 풀어낸다.

'재일조선인 디아스포라 사상'으로 알려진 서경식 씨는 한국 독자들에게는 낯익은 작가다. 베스트셀러 '나의 서양미술 순례'와 '나의 서양음악 순례'를 펴낸

으며 2012년 후광김대중학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에 그가 펴낸 '시의 힘'은 디아스포라의 눈으로 본 '시'와 '문학'의 초월성을 다룬다. 제목은 '시의 힘'이지만 그의 사유는 그 기저에 자리한 '언어'의 바다에 닿아 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습득하기 시작하는 말과 학습을 통해 배우는 글이 어떻게 개인의 사상을 구축하고 시와 문학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저자는 단지 우리나라 문학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조선, 중국, 일본의 시와 문학에 관해 이야기하며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관통한다. 문학이 태생적으로 시대적 상황과 호흡하며 쓰여진다는 사실과

맞닿는 부분이다.

일테면 이런 것들이다. 이상화, 윤동주의 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서시' 등의 시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와 연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다.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시각에서 벗어나 '추진'을 빼앗긴 자들과 함께 호흡하고 거대자본과 거대권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분단과 이산이라는 현실에 놓인 '민족문학'을 '한국문학'의 틀에서 벗어나 세계적 보편성을 지닌 문학으로 가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학이 언어의 장벽이라는 한계성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암사·1만4000원>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동·서양 철학자 33인의 삶과 사상



세상을 바꾼 철학자들

희망철학연구소 지음

철학의 시초 탈레스부터 21세기 세계적 셀러브리티 슬라보예 지젝까지, 춘추 전국시대의 공자부터 성현의 학문을 추구한 양명까지, 동서양 주요철학자들 33인을 선별해 핵심사상을 집약한 최적의 철학입문서가 나왔다.

철학의 대중화와 인문의 대중화에 공로하고 있는 희망철학연구소가 펴낸 '세상을 바꾼 철학자들'은 고대부터 현대까

지 핵심개념으로 읽는 철학사다.

책은 철학사적 연대기에 근거해 크게 5부로 구성됐다. 1부 고대에서 '세계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2부 중세 '존재의 근원을 신에게 묻다', 3부 근대 '이성의 한계를 추구하다', 4부 19~20세기 '새로운 인간을 사유하다', 5부 동양 양명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철학사의 핵심 문제들과 철학자 고유의 독창적 사상을 만날 수 있다.

기억할 만한 일화를 소개해 철학자들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해를 돕고, 난해한 사상을 이해하는 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핵심어를 선별해 상술한 별도의 코너도 마련했다.

<동녘·1만9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야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의, 전 동신대학교수

진료문의 (062) 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